

# 6월 전국 아파트 평당 분양가 993만원

### 주택도시보증공,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전년 동월비 6.7% ↑

### 광주, 506세대 신규 분양...북구 높은 가격으로 평당 960만3천원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m<sup>2</sup>당 평균 분양가격은 6월 말 기준 301만2000원(3.3m<sup>2</sup>당 993만1900원)으로 전월 대비 0.99%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7% 상승한 수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 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7년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공개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월 대비 12개 지역은 상승 2개 지역 포함 3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49만4000원(3.3m<sup>2</sup>당 1483만200원)으로 전월 대비 2.41% 상승했고 5대광역시 및 세종시는 0.87% 상승, 기타 지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평균 분양 가격은 전

용 면적 85m<sup>2</sup> 초과 102m<sup>2</sup> 이하(2.73%), 전용 면적 60m<sup>2</sup> 초과 85m<sup>2</sup> 이하(0.68%)순으로 상승했다.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2만 8446세대로 전월 대비 1만6236세대(13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447세대(23%) 감소했다.

수도권의 신규 분양 세대 수는 총 1만8742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9%(1626세대)가량 증가해 이달 전국 분양 물량 중 가장 큰 비중(65.9%)을 차지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총 2054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41%(1409세대), 기타 지방은 총 7650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53%(8664세대)가량 감소했다.

서울 지역은 강동구와 노원구 양 세종시는 0.87% 상승, 기타 지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평균 분양 가격은 전

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강동구와 용산구, 은평구의 영향 등으로 m<sup>2</sup>당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4.17% 상승한 666만7000원(3.3m<sup>2</sup>당 2200만 1100원)을 기록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서구와 연수구에서 기존 분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총 4013세대 신규 분양이 이루어졌다. m<sup>2</sup>당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1.09%가 상승한 33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은 고양시와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를 중심으로 총 1만 643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m<sup>2</sup>당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0.43% 상승한 348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산 지역은 서구와 부산진구에서 511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이달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북구와 연제구의 영향으로 m<sup>2</sup>당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1.88% 상승한 361

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대구 지역은 남구에서 617세대 신규 분양이 이뤄졌다. m<sup>2</sup>당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2.10% 상승한 32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은 북구와 서구에서 506세대 신규 분양이 이뤄졌다.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북구의 영향으로 광주 지역 m<sup>2</sup>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보다 0.78% 상승한 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은 북구에서 420세대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m<sup>2</sup>당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0.09% 오른 358만2000원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김성우 HUG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입주 예정 물량과 정부의 후속 정책 발표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청약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 폭도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스



## 편의점 가맹점주 순수입 14% 감소 예상

### 최저임금 753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1060원) 대폭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비상에 걸렸다.

17일 하나금융투자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일매출이 180만원으로 동일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가맹점주들의 순수입은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올해 2분기 편의점 일매출 성장률이 0.5% 수준으로 지난 1분기의 1.9%보다 떨어졌다는 점은 더욱 부담이다. 일매출 규

르바이트생보다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점포당 일매출 증가율이 5.3%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 업체들의 출점 경쟁 심화에 따라 점포당 매출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결국엔 본사 차원에서의 직접적 지원책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수익 매진 등 직접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올해 하반기 시

점포당 일매출 180만원 동일할 경우 순수입 356만원서 305만원

손실 보전하려면 일매출 증가율 5.3%까지 확대되어야...가능성 낮아

모가 작은 소형점포일수록 부담은 커진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와 무관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편의점 1개 점포당 평균 일매출 180만원일 경우 월매출은 5472만원, 매출총이익은 1642만원, 가맹점주 수입은 1067만원이다. 여기서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비용 711만원을 제외하면 가맹점주 월 순수입은 356만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16.4% 상승, 16시간 근무를 가정할 경우, 인건비는 362만원으로 16.4% 상승,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가맹점주 순수입은 305만원에 그친다.

특히 지금도 월 20만원도 못 버는 가맹점주들이 수도룩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

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맹점주 협의회 등과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사가 가맹점주를 착취하며 수익을 올리는 모양새로 비쳐져 안타깝다면서 "창업 초기 당시 전액지원되는 시설 인테리어, 집기 지원 등이 가맹비에 감가상각형태로 들어있는 것인데, 점주들과 가맹본부의 평가 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편의점은 점주가 살지 못하면 가맹점도 살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실제로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점포당 총매출의 35%를 차지하는 가맹수수료를 3.5%p만 내린다고 해도 가맹본부의 매출총이익은 10%나 감소하며,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광주·전남중소기업청

###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전남지역 비즈쿨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창업아이디어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특목 특외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미래의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창업신도대학)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순천정안고·별교상업고 등 전남권 비즈쿨 12개 학교 80명의 학생과 담당교사가 참석한다.

캠프는 선배에게 듣는 'Start-Up Story', '창업동아리 맞춤형 멘토링' '창의적 문제 해결방법', 발표 스킬 강화 훈련 등 학생들에게 창업 꿈을 심어주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셋째 날 열린 창업경진대회 발표평가에서 총 20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진형 청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재미있게 즐기면서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를 지닌 미래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쌍용자동차, 20일부터 티볼리 아머(Armour) 출시

### 미식축구 보호구·메카닉 이미지서 영감...스포티한 조형미 극대화



쌍용자동차가 오는 20일부터 티볼리 아머를 전국 전시장에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티볼리 아머는 미식축구 보호구와 메카닉(mechanic)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범퍼 디자인은 스포티한 조형미를 극대화하는 등 SUV 본연의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퍼 상단에 적용된 크롬라인 몰딩과 신규 LED 포그램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

고 세련된 느낌을 가미했다. 신규 17인치 다이아몬드커팅휠은 세련되고 옛지 있는 스포크 디자인으로 측면디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기준에 일부 외장 컬러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루프컬러 사양은 8가지 모든 컬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실내 공간은 시트와 도어트림 등 인테리어 전반에 컷팅 패턴을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감성 품질을 강화했으며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스티


어링휠의 버튼 레이아웃을 변경함으로써 조작성을 향상시켰다.

티볼리 아머는 언더코팅 범위를 확대해 실내로 유입되는 노면소음을 최소화하는 등 NVH(소음·진동 방지) 성능을 강화했다.

국내 최초 주문제작형 콘셉트의 'My only TIVOLI' 기어 에디션(Gear Edition)은 주력 모델인 VX를 베이스로 최고급 컷팅 가죽시트에 HID 헤드램프 등 선호사양을 대거 추가했다.

특히 ▲아웃사이드미러 ▲리어 LED 원로고 엠블럼 ▲도어스파캅 ▲블랙휠 ▲루프컬러 ▲데칼 등 풍부한 전용 아이템의 조합을 통해 수입만까지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인 티볼리 아머의 판매 가격은 엔진 및 트림 별로 가솔린 모델은 ▲TX(M/T) 1651만원 ▲TX(A/T) 1811만원 ▲VX 1999만원 ▲LX 2242만원이다. 디젤 모델은 ▲TX 2060만원 ▲VX 2239만원 ▲LX 2420만원이다. 스페셜 모델인 기어 에디션(Gear Edition)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 2195만원 ▲디젤 모델 2400만원이다.



사람중심·생명중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